



안녕하세요? 들꽃 김미경수녀입니다. 저는 1997년에 입회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장 애인복지관과 본당 세 곳에서 각각 2년씩 사도직을 했습니다. 유기서원자로서 좌충우돌하며 수도생활에 적응하고 배우는 시기라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수도생활의 하루는 어느 한 순간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일들이 비교될 수 없이 모두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랑의씨튼수녀회를 이루는 하나의 벽돌로 제가 굳건해야 우리 공동체가 굳건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2016년 현재까지 소명여고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 사도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나는 대상은

학생들이 아니라 물건 납품 업자, 회계, 청소, 경비하는 직원들, 급식소의 조리사들과 더불어 고장 난 기계, 수리가 필요한 건물 등이랍니다.

이제 눈치 채셨죠? 제가 하는 일은 일명 '돈가방을 든 수녀', 행정실장이랍니다. 수녀님들께 인사드리는데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순간의 은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예수님 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매일 2천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행복해 한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제 몫입니다.



급식소 조리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좁은 조리장에서 음식 준비만 하다가 자연으로 나오니 모두들 하느님을 잘 모르지만(신자가 아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씨튼이 소명학교에 계시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마더씨튼을 따라서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수녀님을 통해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상황이 곤란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인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고, 은인 도움으로 그 학생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마더씨튼도 커피를 좋아하셨을까요?

특수학급(해오름반)에서 수녀님이 학생들 직업교육으로 주1회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한 커피전문점 회사의 회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커피전문점 회장님은 카페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지도해 주었고, 카페운영을 위한 교육과 함께 원두커피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덕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좋은 커피와 맛있는 빵으로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있답니다.

지금 교정에는 벚꽃이 한창피어 무척 아름답습니다.

수녀님을 모두 초대하고 싶네요. 오후에는 수녀님들을 초대하는 그날을 꿈꾸며 뒷동산(소명원)의 낙엽을 치워야겠습니다. 아! 방금 전화가 왔는데 고양이가 강당에 몰래 숨어들어 새끼를 낳았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기사님들과 함께 가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지요





Hello, Sisters! My name is Sr. Kim Mi Gyeong (II).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7. From 2001 to 2008 I was involved in two major ministries: in three parishes and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 worked for two years at each place. When I recollect those times, I learned by trial and error as a junior professed sister to adjust myself to religious life and new ministries.

Through those times, I came to understand the values of our daily lives. I also learned

that each of us is responsible to stand firm as a brick for our Congregation to build a strong house.

Since 2010 I have been working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Most of my time is spent by meeting all the staff and faculty members, plus taking care of all the materials, cleaning, accounting, and cooks in the cafeteria. Do you know what I mean? Yes! I am the school business manager, especially taking care of finances. Do you remember the movie “Nuns on the Run?” Sometimes I imagine myself like the two movie characters disguised as nuns, thinking of money all the time. However, through my various works as school business manager, I meet the grace of God in my daily life. Let me tell you some of these!

Daily as I manage the meals for over 2,000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with the dietary staff, I experience the compassion of Jesus towards the 5,000 people gathered together to listen to his words. Jesus also told his disciples to go to the remote areas and take a rest. My obligation is also to provide rest and comfort places for the students. One day I went on a picnic with the dietary people. This is the picture of us taken on the picnic day. We really enjoyed the time and praised God who endowed us with this beautiful nature.



received the donation from the benefactor, graduated high school, and went to university with good scores. Do you think Mother Seton loves to drink coffee? We have a special classroom for the mentally challenged students. The sister in charge of the class asked if she could run a café to offer the students vocational training. Hearing her words, I sent a letter to the CEO of a famous coffee company for help, and he was willing to provide education and materials to begin. Now the students are running the café and many school members enjoy coffee and bread.

If Mother Seton lived near us now, what would she do for the students? I often think of this. One of our sisters told me that a student had economic difficulty because her mother was sick. So I wrote a letter to one of our benefactors asking help for this student. The student received the donation from the benefactor, graduated high school, and went to university with good scores. Do you think Mother Seton loves to drink coffee? We have a special classroom for the mentally challenged students. The sister in charge of the class asked if she could run a café to offer the students vocational training. Hearing her words, I sent a letter to the CEO of a famous coffee company for help, and he was willing to provide education and materials to begin. Now the students are running the café and many school members enjoy coffee and bread.

Cherry blossoms are blooming in the garden of the school now. I want to invite all of you to this beauty. I wish you might come to see us. Oh! I got a call from someone saying that a cat had kittens in the corner of the auditorium. I should go now. Bye sisters!

